



해방의 기도

참고하여

누가복음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Bishop Cynthia
Moore-Koikoi**

*Bisho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estern Pennsylvania*

히브리 노예들과 모세,

예레미야, 에스더, 군대귀신 들린 자, 우물가의 여인, 헤리엇 터브먼, 프리덤 라이더스, 넬슨 만델라, 세자르 차베스, 빈센트 시몬스, 센트럴 파크 파이브, 베르타 카세레스, 존 바예즈의 하나님; 속박되어 살았거나 거짓으로 투옥되었거나 압제를 받는 모든 자의 하나님; 갇힌 자들과 억압된 자들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압의 시스템에 참여하는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착취와 핍박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영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갇힌 자들, 특별히 “억눌린 자들과 함께 한 죄” 밖에 없는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중에 부르신 에스더와 차베스가 일어나서 국회, 정부, 대통령에게 고대의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내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고 선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압제자들과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이들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일어나 돌이켜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정의가 없고 평화가 없는 곳에서 정의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약 주님께서 저를 에스더로 부르셨다면, 제가 용기를 가지고 그 부름에 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만약 주님께서 저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저의 눈을 열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v. Eric Mayle
*Minister of Connection
at Calvary United
Methodist Church
Nashville, TN*

광야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광야에서 하갈을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가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가 두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사람이 되게 하사 이 불편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해방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해방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영이 간섭할 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인종 차별이라는 광야 속에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유색 인종 이웃들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을 마음을 허락 하소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만 편해지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이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서 백인 우월주의의 뒤틀린 뿌리를 뽑아 내고, 그리하여 우리 이웃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인도와 축복을 자유롭게 받게 하소서.

아멘



Rev. Dr. Giovanni Arroyo
*General Secretary
General Commission
on Religion and Ra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ashington, DC*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보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비인간화시키려는 편견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한 집단을 다른 집단이 계속해서 억압하는 시스템;
관계를 해치고 파괴하는 행위들;
계속해서 사회와 창조 세계에 권력을 행사하려는 수많은 방법들.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합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불의에서 정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그리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남아프리카인들의 찬양에 참여합니다:
자유는 곧 오리라. 자유는 곧 오리라. 자유는 곧 오리라.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아멘



Kenneth Dulanas Base
*Local Youth Pastor
at UMC-Mortola St.
Cagayan de Oro City,
Philippines*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는 만민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

그리고 자비로 가득 찬 천국으로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걱정과 삶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사

모든 이들이 조화와 우애, 그리고 견고한 연대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을 통해 주님의 구원 행위를 대변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는 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 희망을 밝히는 등불,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하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평화를 옹호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Nadia Kanhai
*NIC Chair,
Anti-Racism Task Force,
co-chair CCORR
Aurora, IL*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해방의 하나님,

복음에 대한 우리의 열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이었지만 사실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달콤한 해방을 맛본 후에 우리는 다시 눈 먼 자들의 행복이라던가 장밋빛으로 치장된 거짓 행복으로 돌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소서!” 하지만 상처를 닦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202년 여름, 우리 조직과 사회에 구축된 백인 우월주의가 본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그 짐승을 무찌르고, 새로운 미래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재산을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약탈자들을 위한 해방이었습니까?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범죄와 #SayHerName¹ 은 여성 혐오적인 인종차별과 성폭력을 첨예하게 교차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사채업자와 성노동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이 분이 우리가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한 해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우리가 만약 죄수들을 풀어준다면 판결이나 형량도 당신에게 맡겨야 하나요? 그들을 우리와 평등하게 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에서?

하나님, 해방이 확실한가요? 자유주의자들의 아젠다처럼 들리네요. 당신은 우리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배운 다른 것을 어떻게 고의적으로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약속하는 진정한 해방을 개념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불신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의 해방은 가난한 자, 갇힌 자, 보지 못하는 자, 억눌린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만, 두려움, 불확실성,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달콤한 해방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아멘.

¹ #SayHerName 은 경찰의 만행으로 피해를 입은 흑인 여성 피해자와 미국의 반 흑인 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 운동입니다.



Vince Gonzales

Lay person

GCORR Board Member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오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굶주린 배를 정의로 채워주시고, 외로운 주머니를 평화로 가득 채워 주소서.

모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소서. 죄, 중독, 두려움, 전쟁, 그리고 실제로 또는 개념적인 벽에 부딪힌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경이로운 창조 사역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어둠 속에서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빛 가운데 걷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러나 특별히 제 자신을 가르쳐 따를 수 있도록,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제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기를 바라며, 그 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ishop Sudarshana
Devadhar**

*Bishop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New England Annual
Conference*

리더: 창조주 하나님, 세상은 책망하기를 계속합니다,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 137:3)

**성도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우리는 계속하여 묻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시 137:4)**

리더: 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이것은 당신의 땅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을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도들: 시온의 노래가 전세계 언제 어디서나 불러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리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 청지기로써 당신의 창조를 영화롭게도, 높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좋고 거룩한 땅을 환대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리더: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함이

**성도들: 우리 사회, 국가, 그리고 전세계에 고통, 분노, 고통, 인종적 불의,
빈곤, 전쟁,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리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온의 노래 부르기를 거부하여 당신께 죄를 지었다는
겸손한 고백을 들으소서.

**성도들: 우리는 피부색, 말투, 문화가 다른 동료와 친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침묵이 압제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약자들에게는 해를
가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리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용기, 그리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역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성도들: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시온의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거룩한 담대함을 통해 이 노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온으로 행진할 수 있게 하소서. 세례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종류의
인종 차별, 불평등, 불의에 맞서 싸우게 하소서.**

리더: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례 서약을 기억하고 새롭게 되도록 도와 주소서.

**성도들: 그리하여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애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이념과 억압을 소멸시키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어디에서나 시온의 새 노래를 부르기를 다짐합니다. 아멘.**